

# “깜깜이 최저가 낙찰 시장격리제, 쌀값 하락 부추긴다”

### 평균 낙찰가 6만3763원 ‘낙찰률 72.6%’...5만5000t 유찰 발생 “전남 유찰 물량 90% 농가서 발생...농민 소외시키는 제도 방증”

6년 만에 치러진 시장격리 쌀 입찰에서 평균 낙찰가는 6만3763원(40kg 조곡)으로, 농가가 희망하는 6만8000~6만9000원에 턱없이 못 미쳤다. 정부가 예정 입찰가(기준 가격) 비공개 원칙을 내건 탓에 농민들은 얼마를 써내야 낙찰받을 수 있을지 혼선이 생기면서 유찰이 대거 발생했다. 유찰된 5만5000t에 대한 추가 공매는 커녕 정부가 시장상황을 보며 추가 격리하기로 했던 7만t에 대한 매입계획도 불투명해졌다. 10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진행된 '2021년산 시장격리곡 경쟁입찰'에서 도정된 정곡 20만t(조곡 27만8000t) 가운데 14만5280t이 낙찰되며 낙찰률 72.6%를 기록했다. 이날 평균 낙찰가는 40kg 조곡(벼) 기준 6만3763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농가 63곳, 농협 129

곳, 민간RPC 6곳 등 198개 업체가 낙찰 받았다. 전남지역 평균 낙찰가는 6만3853원으로, 낙찰 업체는 48곳이었다. 낙찰 비율은 전국 8개 도가 큰 차이를 보였다. 전국 최대 비중인 27.9%(7만7400t)을 배정받은 전남에서는 6만3400t이 낙찰되면서 낙찰률 82.0%를 나타냈다. 전남지역 응찰 물량은 22만t 가량으로, 배정 물량의 3배에 달했다. 이 가운데 농가 응찰 물량은 6만2000t 정도였다. 수확기 수매가가 7만7000원에 달했던 경기도 낙찰률은 9.0%에 불과했다. 전남지역 수매가(6만3860원)를 조금 웃돌았던 경남(6만4000원)은 23.3%에 달하는 낙찰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농가물량 우선 매입'을 내세웠음에도 농민들은 기준 가격에 대한 아무 정보 없이 응찰하면

서 유찰이 대거 발생한 점이다. 이번 입찰 방식인 '역공매 최저가 입찰'은 최소 응찰 단위를 100t(정곡·최고 3000t)으로 정하고, 예정 입찰가 이하로 응찰한 농민들이 우선 낙찰 받게 되는 구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전남에서 유찰된 물량의 90% 상당을 농가의 것으로 파악했다. 전남 농민회총연맹은 이날 '쌀 시장격리 최저가 낙찰제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며 쌀값 하락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올해 처음 도입한 쌀 시장격리제는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 예정 입찰가를 알려주지 않고 최저가격 낙찰제(역공매)를 고집하면서 기대했던 쌀값을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예정 입찰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손에 넣은 업체 측이 유리한 가격을 써내면서 농가 매입 기회를 박탈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남 농민회총연맹이 추천한 예정 입찰가는 6만

■ 2021년산 시장격리곡 낙찰 결과

지역별	비율(%)	업체 수(개소)	평균가(원)
계	72.6	198	6만3763
전북	56.4	17	6만4010
충북	61.0	7	6만3984
강원	84.8	19	6만3932
전남	82.0	48	6만3853
충남·세종	55.3	20	6만3841
경북	70.4	32	6만3827
경남	234.3	51	6만3458
경기	9.0	4	6만3263

※40kg 조곡 기준, 자료:농협경제지주

4360원이다. 농가 기대치인 6만8000~6만9000원 선을 크게 밑돈다. 농민들이 예정 입찰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써냈다면 농가물량 우선 매입이 원칙이어도 유찰될 수밖에 없었다. 김선호 전남 농민회총연맹 사무처장은 "지역농

협에 입찰을 맡긴 농가 물량은 모두 낙찰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난해 11월에 추가 매입을 완료했어야 함에도 올 2월에 실시한 건 결국 시장격리제도가 농민을 우선시하는 게 아님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올 1월 들어 정부지원을 받는 시중 미국중합처리장(RPC) 평균 조곡 거래가격을 기반으로 예정 입찰가를 산출했다"며 "예정 입찰가는 부처 내에서도 극히 일부만 알고 있었으며, 농협에도 입찰이 끝난 뒤 공유했다. 일부 국회의원이 예정 입찰가를 미리 알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시장격리를 막 끝낸 참이라 시장에 반영되는 효과를 지켜본 뒤 유찰 물량 매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당초 거론된 초과 생산량 7만t에 대한 추가 격리 역시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역대 시장격리곡 입찰은 지난 2010년과 2015년, 2016년 두 차례(3월·10월), 그리고 올해까지 총 5번 추진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효성티앤씨-닥스셔츠 손잡다... ‘리젠 넥타이’ 출시

### 타이 1개당 페트병 1.8개 사용

효성티앤씨의 페트병 리사이클 섬유 '리젠'(regenR)이 프리미엄 셔츠 브랜드 '닥스셔츠'와 만나 친환경 넥타이(사진)로 재탄생한다. 효성티앤씨는 10일 ㈜트라이본즈의 프리미엄 남성 패션 브랜드 닥스셔츠에 친환경 섬유 '리젠'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포츠웨어에 이어 남성 패션시장에서도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그린슈머'(그린+컨슈머)가 증가함에 따라 효성티앤씨는 고객 의견을 반영, 국내 남성복 브랜드 닥스셔츠와 협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효성티앤씨는 닥스셔츠에 리사이클 섬유 리젠으로 만든 원단을 공급했다. 닥스셔츠는 이를 사용해 친환경 넥타이 컬렉션 '닥스 러브 페트'(DAKS



LOVE P.E.T.)를 출시했다. 닥스셔츠는 지난 7일부터 총 11종의 친환경 넥타이 컬렉션을 자사 온라인몰에서 선보이고 있다. 백

타이 1개당 약 1.8개의 투병 페트병이 사용된 이 제품은 셔츠를 즐겨 입는 남성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앞서 효성티앤씨는 2000년대 초부터 친환경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정하고 재활용 섬유 개발을 계속해 2008년 페트병에서 추출한 폴리에스터 리젠을 개발했다. 2020년부터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업해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섬유 '리젠서울', '리젠제주', '리젠오션'을 생산하고, 이를 의류 및 가방으로 제작해 국내 친환경 패션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효성티앤씨는 향후 지자체 및 패션브랜드들과의 다양한 협업을 확대해 재활용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내 대표 친환경 섬유인 리젠의 브랜드 파워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역대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갤럭시 S펜’

###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 공개...펜 반응속도 70% 줄여

삼성전자는 10일 온라인으로 '갤럭시 언팩 2022' 행사를 열고 갤럭시 S22, S22+(플러스), S22 울트라 등 신제품 3종을 공개했다. 갤럭시S22 울트라에 내장된 S펜은 이전보다 반응 속도가 약 70% 줄었다. 역대 S펜 중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사용자 의도대로 필기가 가능하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S펜은 손글씨로 쓴 80여가지 언어를 인식할 수 있으며, 삼성 노트에 적은 메모는 자동으로 다른 갤럭시 기기에 동기화된다. 갤럭시S22 울트라는 삼성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 중 가장 큰 2.4μm(마이크로미터) 크기의 1억800만 화소 카메라와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각각 3배·10배의 10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2개 등 쿼드(4개) 카메라를 탑재했다. 후면 카메라 렌즈 원형 테두리에는 각각 메탈 프레임이 입었다. 이번 S22 시리즈 신제품 3종 모두 AI(인공지능) 기술로 야간에 피사체를 생생하게 기록하는 '나이트그래피' 기능을 지원하며, 기존 '와이파이6'보다 속도가 2배 이상으로 빠른 '와이파이6E'를 지원한다. 각각 6.1형, 6.6형 디스플레이를 실은 갤럭시S22와 갤럭시S22 플러스도 전자대미 약 23% 커진 이미지센서를 탑재했다. 갤럭시S22 시리즈는 오는 25일 전 세계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국내에서는 사전 판매



가 2월 14~21일에 이뤄지고, 공식 출시일은 25일이다. 갤럭시S22 울트라는 12GB 램과 256GB 내장 메모리, 12GB 램과 512GB 내장 메모리를 탑재한 두 가지 세부 모델로 출시되고 가격은 각각 145만2000원, 155만1000원이다. 갤럭시S22와 갤럭시S22 플러스는 8GB 램과 256GB 내장 메모리를 탑재한 세부 모델로 출시된다. 가격은 갤럭시S22가 99만9900원, 갤럭시S22플러스가 119만9000원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광주·전남 주식투자 심리 ‘똥똥’

### 지난달 거래대금 1조2760억 줄어...감소율 전국 평균 웃돌아

주식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지난달 광주·전남 주식거래대금 감소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10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1월 광주·전남 주식거래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주식거래대금은 7조3446억원으로, 전년(8조6206억원)보다 14.8%(-1조2760억원) 감소했다. 전국 거래대금은 516조원에서 469조원으로, 9.2%(-47조원) 감소했다. 지역 투자거래대금을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거래

액은 2.5%(3조9400억원→3조8400억원), 코스닥은 25.1%(4조6700억원→3조5000억원) 줄었다. 지난달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밑돌며 2020년 11월 이후 최저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 37개사의 시가총액 감소율도 전국 평균보다 심화됐다. 이들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은 21조873억원으로, 전달(23조1581억원)보다 8.9%(-2조708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6.6%)을 훌쩍 넘겼다. 광주·전남 코스피 상장사 시총은 한 달 새 1조7331억원(-8.5%) 빠지고, 코스닥은 3377억원(-11.9%) 감소했다. 지역 코스피 상장사별로 보면 대우플러스 시총은 0.8%(12억원↑) 증가한 반면 다이나믹디자인(-188억원), 금호에이치티(-884억원), 한전KPS(-2745억원) 등이 감소했다. 코스닥에서는 와이엔텍 22.8%(445억원), 대신정보통신 13.4%(63억원), 상상인더스트리 6.0%(40억원) 증가했고, KPX생명과학(-513억원), 에니젠(-196억원), 박셀바이오(-1392억원) 등에서 시총이 빠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기업 모집

### 중진공 광주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수출인큐베이터(수출BI)에 입주할 수출 유망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거점 12개국에 20곳이 운영되고 있다. 입주기업에게는 ▲독립 사무공간(1년차 80%, 2년차 50% 임차료 지원) ▲회계·법률자문 및 컨설팅 ▲시장조사 등을 지원한다. 또 현지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시제품 제작과 바이어 테스트 등 제품 현지화,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입주기업에는 독립 사무공간, 회계·법률 자문 및 컨설팅, 시장조사를 지원한다.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박흥주 중진공 광주본부장은 "수출인큐베이터가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이끄는 든든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박기용 기자 pbxer@



장병 위문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왼쪽)은 최근 지역향토부대인 제31보병사단(사단장 최순건)을 방문해 군부대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담아 위문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은 지난달 31사단 전용 제휴카드를 내놓고 이동점포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경차 유류세 환급 年 30만원으로 확대

올해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늘어나면서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 1ℓ당 250원, LPG 1ℓ당 161원을 30만원 한도 안에서 돌려 받을 수 있다. 현재 유류세율은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1ℓ당 423원과 300원이며 LPG의 개별소비세는 1ℓ당 128원이다. 이 때문에 4월 말까지 경차 소유자가 LPG를 쓸 경우엔 세금을 전액(128원) 돌려 받게 된다. 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 1대와 일반 승용·승합차 1대가 있는 경우,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

합차가 각각 1대씩 있는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형 승용차 2대가 있는 경우나 경형 승합차 2대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신청자가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증을 마친 뒤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해 준다. 환급은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정승일 한전 사장, 공사현장 안전사고 근절대책 점검

지난달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한 한 국전력 정승일 사장이 10일 공사현장을 찾아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정 사장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전력구 공사현장을 찾아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한전은 여주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난 1월9일 관련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감전·끼임·추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3대 주요 재해에 대해 미리 정한 안전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감전사고 근절을 위한 직접활선 즉시 퇴출, 정

전 후 작업 확대, 간접활선 지속 확대 등도 포함됐다. 정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24일에도 세종시 배전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안전·사업부사장, 경영지원부사장, 전력그리드부사장은 공동으로 '안전경영 특별대책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다. 8개 분과 130여 명의 태스크포스(TF)가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경영진에게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전담지역을 지정해 현장 안전점검을 하는 '안전점검 지역담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71.93 (+3.08)
↓ 코스닥	895.68 (-14.85)
↓ 금리(국고채 3년)	2.264 (-0.015)
환율(USD)	1196.50 (0.00)